

사건의 관점에서 조망한 장소의 의미

김정호* · 이규목**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The Meaning of Place in View of Events

Kim, Chung-Ho* · Lee, Kyu-Mok**

*Ph. D.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ate the meaning of place from the perspective view of events. In the realm of events, time, process, and evolution are emerging as more important elements for better places rather than space or fixed physical element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phenomenological contribution to the meaning of place by discussing differences between positivism and phenomenology.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has strengths that can perceive individual experiences and idiosyncrasies through a holistic approach and qualitative methods. However, it has weaknesses such as unpredictability, subjectivity and ambiguity.

In order to overcome these weaknesses, the notion of singularities(pure events) on the metaphysical plane existing between nature and culture is explored via Deleuzean concepts(Post-structuralism); singularities become events(simulacre) through 'becoming' and these events have meaning through this process in the particular place. By this process, the subject can feel a sense of place through this meaning. Events unexpectedly create a series of events and have impact in the future.

Creating various events in the particular place requires many contextual settings where the embodied perceptions could take place. Describing the potentiality of embodied perceptions demands 'smooth space' rather than 'striated space'. Smooth space refers to the space where orientations and linkages are in continuous variation.

Recent architectural and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projects reveal that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open-ended set of various events unfolding over time rather than the physical settings of the place.

For better landscape design, new concepts need to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se new concepts should focus on creating a series of events and considering the evolution of the place over time through multi-contextual and rhizomathical synthesis rather than rigid and static master plan of

SAD(survey-analysis-design) methodology.

Key Words : Subject, Object, Meaning, Phenomenology, Post-structuralism, Events, Series, Smooth Space, Time, Evolut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세기 이후 서(西) 거의 모든 학문영역에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논리 실증주의적 사고는 학문의 전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논리 실증주의의 기본개념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이 가능하여야 의미를 가진다는 검증가능성의 원리인데,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이 검증 가능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진술들은 과학적 진술로서 승인하고, 그렇지 못한 형이상학적 기술적(記述的) 진술들은 무의미한 진술로서 배격하는 태도를 취한다(김선태, 1985). 이러한 분석적, 객관적, 계량적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한 과학적 진술을 중요시하는 논리 실증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여 근대학문의 영역은 확장, 발전되어왔으며, 또한 점점 더 세분화되어 갔다. 이러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은 질적인 특성보다는 양적인 특성을 중시하여 모든 것을 정량화하고 환수화하여 파악하려 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이나 인간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실증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와 대비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준 것이 현상학적 접근방법이다.

인간은 어떠한 환경을 인식할 때, 그 환경을 자기와 분리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 스스로 환경의 한 부분이 되어 환경을 체험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를 분리된 대상으로서 환경을 파악하려는 객관적, 실증적인 태도라고 본다면 후자의 경우는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총체적인 태도(holistic attitude)라고 할 수 있다(이규목, 1988). 이러한 현상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개인의 체험적 사실과 현상 본질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더 이상의 현실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은 결국 주관적인 체험 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설계방법론으로 적용되거나 발전하는데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특성 및 한계를 고찰하여보고, 현상학과 아울러 새로운 시각에서 장소의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시각에서 조망해본 장소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사건의 관점에서 본 장소의 의미와 생성과 변화 등 장소와 연관된 문헌조사를 연구방법으로 하여 진행된다. 먼저 현상학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 후,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기존의 연구성과 및 내용을 살펴보고 현상학적 입장에서 장소 해석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본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사고로서 들뢰즈의 후기 구조주의적 사유체계를 근간으로 시간에 따라 생성, 변화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고찰하여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사건 중심적인 사유방법이 기존의 사유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실증적, 현상학적, 구조주의적 사유와는 어떠한 다른 특징을 지니는지 파악하여보고, 이러한 시각이 기존의 형태 중심적인 설계경향에서 탈피하여 설계방법보다는 변화의 과정과 진화를 중시하는 최근의 경향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건적 사유의 의미를 제고하여 보고자 한다.

II. 현상학적 접근방법

1. 현상학의 특징

‘사태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²⁾라는 현

상학의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현상학은 본질직관을 통한 파악, 즉 주체의 직관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학문이다. 사태란 근본적으로 직관할 때만 파악이 가능하며, 후설(E. Husserl)은 사태를 근원적으로 드러내 주는 직관이야말로 모든 인식의 원천이라고 명제화하고 있다(이남인, 1996).

현상학이란 주체와 대상간의 관계를 지향성(intention)으로 개념화하여, 그 지향성의 구조 속에서 지향된 대상, 다시 말하면 드러난 의미(noema)와 주체의 의미구성작용, 즉 지향작용(noesis)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다(이진경, 2000). 이는 의미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대상을 통해 주체가 파악한 어떠한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주체와 분리된 객관적 대상을 상정하는 객관적인 실증적 사유와는 그 근원을 달리하는 사유체계이다. 메를로-퐁티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지각의 현상학』에서 “내가 대상을 응시하게 될 때 나는 대상에 닿을 내리는 것이다.....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드러난 존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하나의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대상에 거주하는 것이다.....따라서 모든 대상은 다른 모든 대상의 거울이다”(Merleau-Ponty, 1945)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대상이란 주체인 몸과 더불어 인식되는 것이기에 주체와 분리된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대상은 모두가 몸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특유의 몸철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후설에 의해 창시된 현상학은 메를로-퐁티에 이르러 인간과 세계는 서로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실존적 주체철학으로 정립됨으로써 주체와 대상의 이원론적 대립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학적 사유는 인식의 원천을 본질직관이라고 보는 점,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현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점 등이 풍수지리(風水地理)나 기(氣), 선(禪)불교와 같은 동양적 사유와의 유사성이 많아 현상학과 동양사상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박순영, 1996; 홍성하 외, 2000).

2. 현상학적 장소해석방법의 특징

현상학적 입장에서 장소를 해석하는 방법은 투안(Yi-Fu Tuan), 렐프(E. Relph)와 같은 지리학자에 의하여 발전되어왔다. 사실 환경(environment)이란 용어는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주변공간(surround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느낌을 내포하는 용어인 반면에, 장소(place)라는 용어는 주체에 의해 다른 공간과는 분리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한정된 물리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Seamon, 1982), 이미 주체와 대상, 즉 인간과 환경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인식하려는 현상학적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방법이 자연, 환경과 관련하여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개념도 장소성(placeness)과 비장소성(placelessness), 장소감(a sense of place), 장소의 정신(spirit of place), 지령(genius loci)과 같이 장소와 관련된 개념들이다.

렐프는 내부성(insideness)과 외부성(outsideness)의 용어를 사용하여 내부성과 장소와의 일체감의 강도에 따라 내부성을 대리적 내부성(vicarious insideness), 행태적 내부성(behavioral insideness), 감정이입적 내부성(empathic insideness), 실존적 내부성(existential insideness)으로 구분하면서 장소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Relph, 1976), 투안은 사람이 특정한 장소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 장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토지애(topophilia)로 설명하고 있다(Tuan, 1974). 렐프의 내부성과 투안의 토지애는 서로 그 내용적인 면에서 유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장소의 정신, 장소감은 모두 장소성의 특징을 표현하는 유사한 개념들이지만 장소의 정신(spirit of place)은 시간적으로 길고 개인을 포함하는 집단에 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장소감(a sense of place)은 시간적으로 짧고 개인적인 국면에 주로 사용된다고 구분할 수 있다(이석환, 1998).

노버그 슐츠는 지령(地靈)과 하이데거의 철학을 접목시킨 건축의 현상학을 표방하면서, 자연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으로서 사물(thing), 우주적 질서(cosmic order), 특성(character), 빛(light), 시간(time)의 5가지를 들고 있다. 그는 대지와 하늘아래에

이러한 다섯 가지 양식들의 다양한 융합에 따라 경관을 낭만적 경관(romantic landscape), 우주적 경관(cosmic landscape), 고전적 경관(classical landscape), 복합적 공간(complex landscape)으로 분류하였다(Norberg-Schulz, 1980). 노버그 슐츠는 경관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경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물리적 현상을 기술하고 다른 경관과 비교하여 독특한 특성을 파악한 후, 이러한 특성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임승빈, 1988).

시몬(Seamon)은 인간의 공간적 행태를 현상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습관적 본질(habitual nature)과 몸의 주관성(body-subject), 장소의 무용(place-ballet)을 들고 있다. 습관적 본질이란 습관이 되어 어떠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회사에서 집에 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몸이란 인식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신체가 아니라 '선인식적(先認識的)인 능동적 주체'라고 보는 것이 몸의 주관성이며, 장소의 무용이란 이러한 몸의 주관성에 의한 몸의 무용(body-ballet)과 시공간적 일상(a time-space routine)이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는 그 장소에 생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eamon, 1980).

이러한 장소의 무용은 바커(Barker)가 제시한 행태적 장(behavior setting)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행태적 장은 다수의 환경-행태의 단순한 합으로 장소가 구성된다고 보는 반면 장소의 무용은 개인과 부분적 환경이 결합하여 부분의 합 이상의 전체로서 형성되어 독특한 활력과 생기를 자아낸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임승빈, 1991). 이러한 행태적 장이나 장소의 무용은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태 그리고 장소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현상학적 해석방법의 특징 및 장단점을 고찰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주관성 및 체험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과학적 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검증가능한 가시적인 변수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서는 가시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다양한 반응, 느낌 등 개인적 체험과 같은 비가시적인 요소들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체험에 의한 방법은 관찰자로서의 의존성이 크며 또한 방법자체가 연구자의 주관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특정한 현상을 너무 중시한다던가 간과하는 주관적인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현상학 자체의 피할 수 없는 한계인 동시에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같이 주관적인 체험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장소의 이용적 측면이나 인간 행태적인 측면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다(Groat, 1995). 장소의 의미를 실증주의처럼 기능으로 환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도, 장소는 어떠한 식으로든 이용된다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이진경, 2000), 현상학적 체험만으로 장소의 의미를 전부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요소 환원주의적 방법이 아닌 총체적 접근방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분석과 종합에 의한 환원적 오류에서 벗어나 본질적관과 이를 통한 서술을 통하여 현상의 독특성을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장소란 단순히 물리적 형태에 인간 개개인의 행동들이 종합된 공간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은 장소와 분리될 수 없는 주체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장소와 인간과의 상호감응적 관계를 강조한다.

셋째, 정성적 특성을 지닌다. 실증주의적 관점은 계량적 분석에 의한 정량적 접근을 추구하지만 현상학적 방법은 현상의 개별성, 독특성과 같이 정량적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성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적 특성은 객관적인 검증이 힘들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동시에 내포한다. 이러한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현상학적 장소의 해석방법을 직접적으로 설계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현상학적 방법은 검증보다는 이해에 중점을 둔다. 모든 연구의 목적이 일반화(generalization)이듯이 현상학의 목적도 일반화에 있다. 그러나 현상학적 일반화는 실증적인 연구에서처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검증을 요구하지 않고 또한 지침이 되는 이론적 틀도 제시하지 않는다(이규목, 1988). 현상학적 방법에서의

타당성의 기준은 단지 주체 상호간의 확인(intersubjective corroboration)이다. 즉 현상학적 타당성의 기준은 해명(explanation)이 아니라 이해(understanding)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해를 통하여 인간의 존재와 의미의 보다 폭 넓은 영역을 공유하는 것이다(Seamon, 1982).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현상학적 방법의 단점 및 한계는 주관성의 문제, 이용적 고려의 미흡,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장소를 해석하기 위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검증 가능한 것만을 인정하는 실증주의적 입장으로 다시 회귀하는 방법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긍정하는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론적 사유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조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적 사유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III. 후기구조주의적 접근방법

1. 의미와 사건

이러한 주관적인 현상학적 관점을 비판하고 기호작용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나타난 것이 구조주의이다. 구조주의에서의 의미는 각각의 대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간의 관계, 차이 등을 통해 대상의 의미가 부여된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해석방법은 기호학적 입장에서 대상을 객관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이 지니고 있는 정태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호체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를 돌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그들 속으로 물어둔다(김형효, 1989). 장소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기호들이 지향하는 대상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의미구조의 분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에서는 대상들간의 관계, 차이에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대상 자체에 내재된 의미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구조주의의 정태적이고 결정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후기구조주의와 탈

구조주의적 사유가 생겨났다. 탈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를 혼용하여 포스트 구조주의로 총괄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탈구조주의란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주의와 같이 구조주의를 완전히 거부하고 반(反)구조적인 것을 추구한 사유이며, 반면에 후기 구조주의란 구조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연, 사건, 시간, 신체, 욕망 등을 사유함으로써 구조를 인정함과 동시에 구조주의를 역동화 시킨 사유체계를 말한다(이정우, 1999).

본 연구에서는 주체의 경험이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 즉 인간과 자연사이에 형이상학적 표면을 설정하여 실증주의의 검증의 한계와 구조주의의 기호적 한계, 현상학의 주관성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사건의 사유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진화론, 엔트로피 이론 등 과학에서의 새로운 발견의 영향으로 근대의 기계론적 결정론적 사고를 탈피하는 새로운 사유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베르그송(Henri Bergson)이다. 베르그송은 “존재하는 것은 오직 과정이나 사건, 생성이나 지속”뿐이다”(Lamprecht, 1955)라고 주장하면서 공간보다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유를 전개하였는데, 들뢰즈는 이러한 베르그송의 지속의 철학을 현대적 의미로 부활시키면서 지속(duration)이 공간보다 더 심원한 다수성과 통일성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간의 양태적 본성은 공간의 고유한 통일성을 제고하지 않으므로, 존재의 본질적 본성을 실체적 통일성으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시간에 의해 사고해야만 한다(Hart, 1993)고 하면서 시간, 생성,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들뢰즈는 의미란 사건과 결부시켜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의미는 바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문화의 선형적(先驗的) 조건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란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순간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즉 갖바이 흔들리는 것,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모두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사건이란 물체들이 운동할 때 발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정우, 1999).

이러한 사건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증적 사고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개념이

다. 왜냐하면 개별화될 수 없는 사건은 환원되거나 검증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상학적 입장에서 사건은 제대로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 사건은 생성, 나타남 그 자체이며, 이는 주체가 의미를 구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주체가 사건의 의미를 포착하는 것은 그 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사건이란 언어로 포착되어 기호화되기 이전의 단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이란 실증주의와 현상학 그리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모두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 이전 단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건은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기 이전의 차원, 즉 개체(대상)의 차원으로 가는 그 경계선 상에 존재한다. 주체와 대상을 주체가 생성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한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주체란 인간이며, 대상은 자연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을 인식하면서 그 위에 문화를 이룩하는데, 이러한 문화와 자연이 접하는 그 접면에 들뢰즈는 '형이상학적 표면(metaphysical plane)'을 설정하였다. 이 형이상학적 표면에 내재하는 것은 순수사건이며, 이 순수사건이 현실화될 때, 그 사건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Deleuze, 1969). 의미는 사건으로서 발생하지만 동시에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사건, 즉 사건 자체는 순수사건이다. 예를 들면 '나뭇잎이 떨어졌다'는 사건이지만 '떨어지다'는 순수사건이다. 그리고 특이성이란 탈(脫)물질적 사건으로 바로 순수사건을 말한다. 이 특이성 즉 순수사건은 개체에게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고, 주체가 체험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며, 언어로 포착되어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이성은 전(前)개체적이고 비인칭적이고 비개념적인 특성을 갖는다(Deleuze, 1969).

이와 같이 들뢰즈는 의미란 사건과 더불어 발생하며, 자연과 문화의 사이에 의미가 발생하기 이전, 주체의 체험이전, 언어로서 기호화되기 이전의 단계에 순수사건으로 구성된 형이상학적 표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실증주의와 현상학 그리고 구조주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는 동시에 정초(定礎)해 주고 있는 것이다(이정우, 1999). 예를 들면, '피다', '느끼다'와 같은 순수

사건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인간(주체)이 장소적 체험을 느끼기 이전의 단계에서 형이상학적 표면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꽃이라는 개체(대상)와 순수사건이 결합되어 '꽃이 피었다'라는 사건이 주체가 몸담고 있는 장소 속에서 발생함으로써 주체는 그 장소에 '꽃이 핀' 사건을 체험함과 동시에 '나는 꽃이 핀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꼈다'라는 주체에 의한 장소적 체험이 생성되며 여기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들뢰즈의 시각에서는 개체가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개체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피다'라는 순수사건이 사건발생 이전에 존재하며, 꽃이라는 개체와 결부되면서 비로소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다.

2. 사건의 계열화

이러한 사건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다른 사건과 계열화(series)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에 의미를 주고 또 다른 사건들과 연속적으로 계열화를 이루으로써 사건은 역동성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Deleuze, 1969). 예를 들면, 이렇다할 의미를 지니지 못했던 정동진 역이 모래시계라는 TV 미니시리즈에서 한 장면으로 소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의 계열화가 일어나 유명해지게 되고 관광객이 몰리게 되어 대형 모래시계가 제작되고 해마다 일출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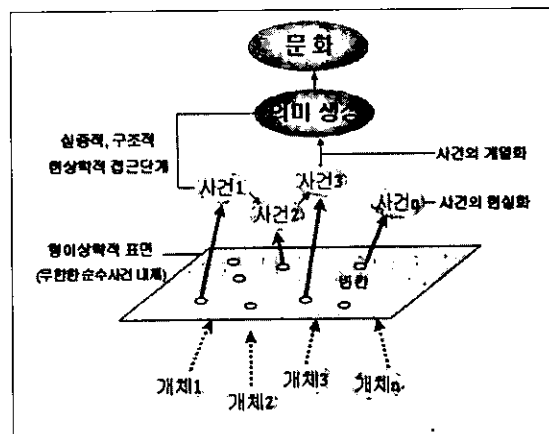


그림 1. 사건과 의미의 생성과정

기 위한 명소로 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만일, TV 미니시리즈에 소개된 사건이 계열화를 이루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났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다란 의미로 확대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정동진 역은 지금도 TV에 방영되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발생이나 계열화는 구조적으로 짜여있는 틀 속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형이상학적 표면의 빈칸⁸⁾으로부터 우발적으로 솟아나는 것이다 (Deleuze, 1969). 다시 말하면 정동진 역이 모래시계의 한 장면으로 소개될 때부터 그 장소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와 같이 구조에 빈칸을 설정하여 역동화 함으로써 구조에 힘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사건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빈칸으로부터 솟아온다고 함으로써 실증주의적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불연속, 카오스, 우연, 시간과 같은 문제를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이정우, 1999).

탈구조주의적 사유에 입각한 해체주의자인 데리다의 경우는 '차연(différa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미의 생성을 설명하지만, 선언적 언표이상의 구체적인 진전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데리다의 차연은 의미를 만들어 내기는 하나 그 스스로는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인 개념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들뢰즈는 의미를 사건의 계열화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이진경, 1997).

요약하면, 사건이란 대상이나 주체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건과 의미는 대상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또 다른 본질을 형성하며 문화와 자연 사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 표면에 내재하는 순수사건이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 현실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사건이 현실화되는 순간, 인간(주체)은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계열화를 통하여 역동성과 힘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계열화에 의한 힘을 통하여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현상학적 사유와 들뢰즈를 중심으로 한 후기 구조주의적 사유의 특징을 비교, 정리하

표 1. 현상학과 후기구조주의 비교

구분	현상학	후기 구조주의(들뢰즈)
특징	본질직관을 통한 주체의 체험을 중요시함	자연과 문화사이에 순수사건이 내재하는 형이상학적 표면을 상징
해석방법	주체와 대상을 분리된 이원적 존재가 아닌 통합된 존재로 인식하여 총체적인 방법으로 해석	주체가 체험하기 이전의 차원에서 사건과 사건의 계열화로 해석
주요 고려대상	정성적 특성을 가지며 개별성, 체험, 실존, 이해를 중시	불연속적 특성을 가지며 시간, 카오스, 우연성, 욕망을 중시
성격	이해를 중시하며 체험적, 서술적 성격	변화를 중시하며 리즘적, 노마드적 성격
배경 및 의의	실증적 객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적 체험을 중시하여 현대 주체철학을 완성	구조주의의 정태성과 짜여진 구조를 타파하고 구조를 역동화 시킴
장소의 의미	장소성, 장소감, 장소의 정신, 지령, 내부성, 토지에 등으로 해석	리즘적, 노마드적 위상학적 공간, 촉감인 매끄러운 공간 등으로 해석

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3. 사건으로 본 장소의 의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이상학적 표면에 내재하는 무한한 순수사건들은 수많은 의미있는 사건들로 현실화되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체험되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발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계열화되며 의미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주관적으로 장소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의 현실화와 계열화 사이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건이 특정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조건을 지층(stratum)이라고 하며, 배치(asmblage)란 특정한 지층 안에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계열화되는 양상을 말한다(Deleuze and Guattari, 1980). 따라서 특정한 양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은 하나의 지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계열화되는 양상을 고려하여 더 많은 지층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바람직한 장소를 조성하려는 조정설계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장소의 의미는 전술한 행태적 장(behavior setting)이나 장소의 무용(place-

ballet)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행태적 장에서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사건과 행태를 조사하여 이러한 행태들의 단순한 합을 행태적 장인 장소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장소의 무용의 개념은 그러한 장소의 역동적 측면을 설명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건의 계열화를 통한 의미의 생성 및 시간적 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건을 통하여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생성, 변화, 진화하는 존재로서 장소의 의미를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소는 어떠한 공간적 특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들뢰즈는 공간을 '홈페인 공간(striated space)'과 '매끄러운 공간(smooth space)'으로 구분하고 있다. 홈페인 공간이란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공간으로서 정주민적 특성을 갖는 공간으로서 공간은 닫혀있으며, 공간은 어떠한 척도에 의해 분할되고 움직임이 정형화되어 분배되는, 구획되고 계산될 수 있는 거리를 가지는 원거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매끄러운 공간은 비유클리드적 공간으로 유목민(nomad)적, 리좀²⁾(rhizome)적 특성을 갖는 공간이다. 매끄러운 공간에서 공간은 연속적으로 열려있으며, 하나의 척도를 갖지 않으며, 척도 자체가 장소에

따라 가변화되는, 무수한 방향을 갖는 힘들이 전체를 동시에 채우는 벡터장과 같은 공간으로서, 거리를 가지는 원거리의 공간이 아니라 시각조차 촉각처럼 만지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감응하는 촉각적(haptic), 위상학적 공간을 말한다(Deleuze and Guattari, 1980).

에셔(M. C. Escher)의 '상대성'이라는 작품을 보면, 세 개의 평면이 수직으로 서로 만나면서 탈중심화된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연속된 공간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 방향의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서로 상호연관 되어있으면서도 주체적으로는 독립적인 이중적인 공간 속에서 살고있다. 에셔는 이 작품을 통해서 위상학적 공간과 척도 자체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변화되는 매끄러운 공간의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건의 관점에서 본 장소란 닫혀있고 규정되고 정형화되어있는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사건과 사건의 계열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공간이며, 척도 자체가 위치에 따라 가변화되는 연속적으로 열려있는 탈중심적 공간이며, 시각위주의 공간이 아닌 직접적으로 오감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촉각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장소를 구성하는 확정된 형태의 의미에만 치중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사건의 생성과 계열화에 따른 장소의 변화, 즉 장소의 진화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있어서의 최근설계경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간에 따른 변화나 사건을 고려하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건축가 토요 이토(Toyo Ito)는 바람의 타워(Wind Tower)라는 건축물의 설계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바람, 소리, 도시의 소음 등을 감지하여 빛으로 변환시켜 타워의 이미지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Puglisi, 1999).

네덜란드의 구즈(Adriaan Geuze)는 시간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움직이고 접혀지는 가로등을 통하여 태양의 이동에 따른 변화를 표현한 로테르담(Rotterdam)의 씨어터 스퀘어(Theatre Square) 조경설계(Geuze, 1995), 그리고 사건의 발생에 따라 접었다 폈다할 수 있는 주차방지 레일을 설치하여 변화하는 사건 자체를 모티브로 경관을 조성한 Market Square Binnero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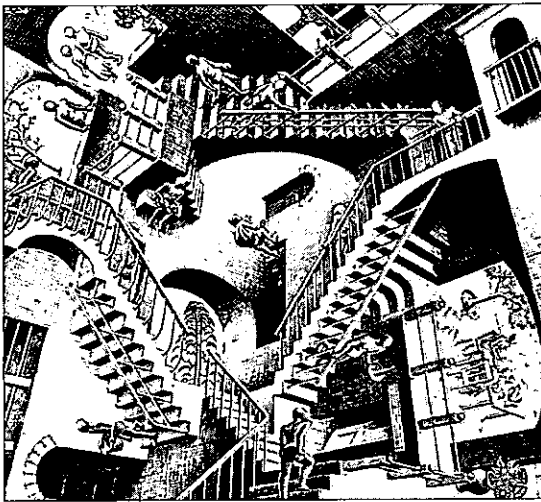


그림 2. 상대성

출처: <http://www.worldofescher.com/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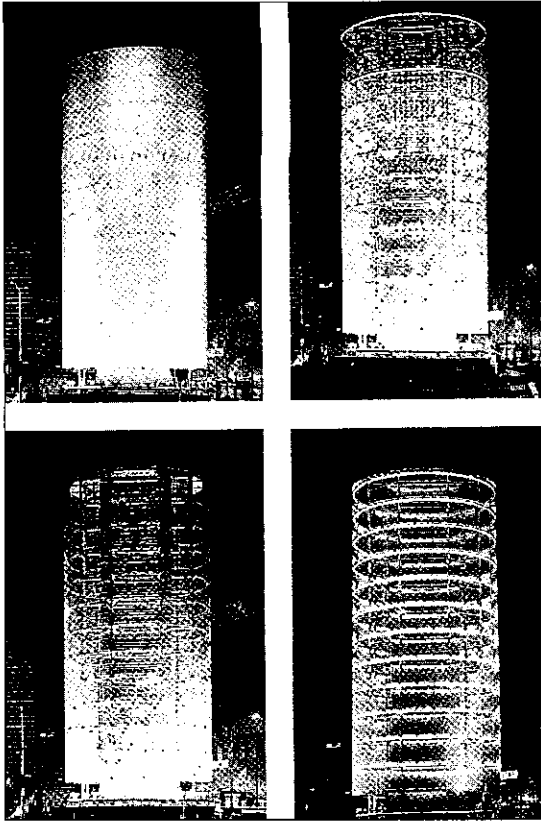


그림 3. 토요 이토의 바람의 타워
출처: Puglisi, 1999 : 21

설계 등을 통하여 형태 중심적인 설계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사건을 염두에 둔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 (Geuze, 2000).

또한 2000년에 있었던 캐나다 토론토시에 위치한 다운스뷰 파크 국제 현상설계 (Downsview Park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에서도 현상설계의 목적을 “설계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성장에 대하여 열린 채로 대상지의 변형을 시도하고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명기하면서⁹⁾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당선된 렘 쿨하스(Rem Koolhaas)팀의 ‘나무도시(Tree City)’안은 최종 결선에 오른 5개팀의 안중에서 공원의 성장과 잠재력을 중시하여 미래에 대해 가장 명백하지 않은 개발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확실하지 않은 개발전략이 오히려 불확정적인 미래의 변화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안이라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의 평가를 이끌어 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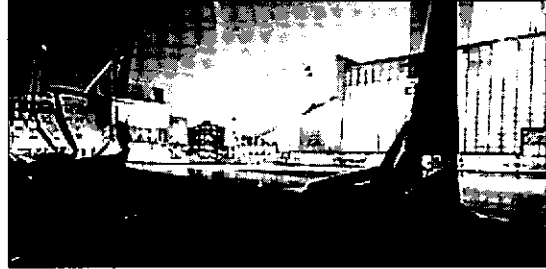


그림 4. 씨어터 스퀘어의 접혀지는 가로등
출처: <http://www.west8.nl/presentation/portfolio>



그림 5. 집었다 폄다할 수 있는 주차방지레일
출처: Geuze, 1995 : 47

(Waldheim, 2001).

장소의 의미란 주체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장소를 구성하고있는 물리적인 형태나 의미 혹은 인간 행태적 측면만을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장소를 결정론적 시각에서 보지 말고,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고 진화하는 존재로서 파악하고 다양한 사건의 계열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연속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인식한다면, 보다 유연성 있는 다양한 장소의 의미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계속해서 장소의 의미의 지평도 넓혀갈 수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이제까지 논리 실증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현상학적 방법의 특징 및 한계를 고찰하여보고 후기 구조주의적 사유인 사건의 관점에서 장소의 의미를 조망하여 보았다.

연구의 출발은 장소를 해석하기 위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의 한계, 즉 주체에 의한 주관성의 한계와 장소의 이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그리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 힘든 점 등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주체에 의한 주관성의 문제는 순수사건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였다. 순수사건은 주체의 주관적 체험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생성되는 비인칭(非人稱)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사건이 내재하는 형이상학적 표면의 설정을 통하여 주관성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장소의 이용에 대한 고려는 사건의 발생과 사건의 계열화를 통하여 이를 매끄러운 공간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계열화를 통하여 장소의 의미가 설정되고 변화하는 이용행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실증주의적 방법인 자극과 반응의 관계나 지각과 인지의 내적 작용으로 인간과 장소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행태적, 인지적 접근방법과는 인식구조 자체가 다르다. 장소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진화하며 열려있는 위상학적 공간으로 인식되며, 사건자체를 자극과 반응, 지각과 인지와 같은 과정이 발생하기 이전의 차원에 존재하면서 우발적으로 형이상학적 표면에서 솟아나는 특이성으로써 파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측불가능의 문제는 사건의 계열화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사실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아무리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고 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 없는 카오스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발적인 변화와 카오스 현상을 인정하고 예측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계열화하고 반복되는 조건들을 조사하여 지층을 만들고 배치를 통하여 계열화되는 양상을 파악하여 본다면 그 장소의 변화의 모습, 즉 진화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법이 정량적 방법으로 결정된 예측보다도 더욱 유연하고 적용가능한 예측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건의 관점에서 장소의 의미를 조망하여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리 실증적 사고나 현상학 혹은 구조주의의 관점들이 생성되기 이전단계에 순수사건이 내재하는 형이상학적 표면의 설정을 통하여 실증적, 현상학적, 구조주의적 입장을 모두 포용하면서 동시에 장소의 해석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한 점이다. 규정을 지으면 지을수록

해석의 범주는 줄어들며, 해석의 한계가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순수사건의 차원에서와 같이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규정된 것도 없고 개별화도 전제되어 있지 않으며, 주체의 개입도 없고, 의미의 생성으로 인한 기호적 해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다양한 해석의 지평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둘째, 형태 및 공간을 중심으로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한계를 벗어나,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생성 및 변화의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장소를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끊임없는 사건의 발생과 계열화를 통하여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조성하려는 시도는 확정된 형태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시간의 흐름과 변화에 따른 장소의 진화에 관심을 갖는 최근 설계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 사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을 인식하고 인식한 자연 위에 문화를 건설하면서 살아왔다. 조경설계라고 하는 것도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과 문화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연과 문화사이의 간극을 이어주기 위하여 때로는 자연적인 입장에서 자연과 동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자연과는 이질적인 인공적인 문화유산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자연과 동화된 장소나 인공적인 장소 모두 다양한 사건을 생성하면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계속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확정된 마스터플랜에 의한 형태 중심적인 설계방법이 아닌, 사건의 생성과 계열화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진화적 관점에서 장소를 해석하고 장소를 설계하는 방법이야말로 미래의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 1. 논리실증주의의 주요개념으로는 검증가능성의 원리에 외재적 합성성의 원리, 원자주의, 경험주의 등이 있다.

주 2. 이는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 자신이 만들어낸 구호가 아니라, 하이데거가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처음 사용한 후 널리 퍼진 것이다.

주 3. 지속(duration)이란 베르그송 철학의 핵심개념으로 베르그송은 '지속은 측량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과 그 밖의 모든 것의 내적 생명의 질이다'라고 하였다.

주 4. 들뢰즈는 사건을 이미지, 허상 등의 의미인 시뮬라크르(simulacre)라고 하였다. 이는 형상, 불변성을 강조한 플

- 라톤주의에 반(反)하는 의미이다.
- 주 5. 내재란 현실화되지 않고 잠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 주 6. 이러한 빈칸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노마드(nomad)적으로 형이상학적 표현 위에서 불규칙하게 떠돌아다닌다.
- 주 7. 리좀이란 감자 등과 같은 뿌리줄기를 뜻하는데, 뿌리(root)와 다른점은 결뿌리나 잔뿌리들이 연결된 곁은뿌리와 같은 어떤 중심이 없다는 점이다. 들뢰즈는 리좀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위계적인 연결보다는 인터넷과 같이 다수의 불규칙적인 연결이 가능한 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 주 8. 다운스뷰 파크 국제현상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parcdownsviewpark.ca/competition>과 <http://www.juncus.com>를 참조

인용문헌

- 김선태(1985) 논리실증주의의 유의미성기준. 전북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pp. 1-7.
- 김형효(1989) 구조주의의 사유체제와 사상: 레비스트로스, 라강, 푸코, 알튀세르에 관한 연구. 서울: 인간사랑. pp.502-503.
- 박순영(1996)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에 대한 선불교적 이해. 서울: 철학과 현실사. pp. 209-255.
- 이규복(1988)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 35-45.
- 이남인(1996) 에드문트 후설. 서울: 동녘. p. 26.
- 이석환(1998) 도시가로의 장소성 연구: 대학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박사학위논문. pp. 41-51.
- 이정우(1999) 시뮬라크르의 시대: 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서울: 거름. pp. 18-96.
- 이진경(1997) 들뢰즈: '사건의 철학' 과 역사유물론. 서울: 푸른숲. pp. 51-52.
- 이진경(2000)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서울: 소명출판. pp. 36-42.
- 임승빈(1988) 경관분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현상학적 접근. 한국조경학회지 15(1): 43-51.
-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88-191.
- 홍성하 외(2000) 후설 현상학과 한국의 풍수지리사상에 나타난 직관에 대한 연구. 한국현상학회 현상학 탄생 백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초록집: 현상학 100년, 그 근원과 한국적 변용.
- Deleuze, Gilles(1969) *Logique Du Sens*. 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서울: 한길사. pp. 60-258.
-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tr., Brian Massum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pp. 474-500.
- Geuze, Adriaan(1995) Market Square Binnenrotte. In B. Lootsma, and I. Breugem, eds., *Andriaan Geuze: West8 Landscape Architecture*. Rotterdam: 010Publishers. pp. 44-49.
- Geuze, Adriaan(2000) *Theatre Square*. In L. Molinari, ed., *West8*. Milano: Skira. pp. 72-83.
- Groat, Linda(1995) Introduction: Place, Aesthetic Evaluation and Home. In L. Groat, ed., *Readings in Environmental Psychology: Giving Places Meaning*. London: Academic Press. pp. 2-7.
- Hart, Michael(1993) Gilles Deleuze: An Apprenticeship in Philosophy. 이성민 외 (역). 들뢰즈의 철학사상. 서울: 갈무리. p. 59.
- Lamprecht, Sterling P.(1955)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김태길 외 (역). 서양철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pp. 586-587.
- Merleau-Ponty, Maurice(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tr., Colin Smith.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2. pp. 67-68.
- Norberg-Schulz, Christian(1980)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민경호 외 (역). 장소의 혼: 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서울: 태림문화사. pp. 33-62.
- Puglisi, Luigi Prestinzena(1999) *Hyper Architecture: Spaces in the Electronic Age*. Basel: Birkhauser. pp. 19-23.
- 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pp. 49-56.
- Seamon, David(1980) *Body-Subject, Time-Space Routines and Place-Ballets*. In Buttimer, and Seamon, eds., *The Human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London: Croom Helms. pp. 148-165.
- Seamon, David(1982) The Phenomenological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sycholog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 119-140.
- Tuan, Yi-Fu(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92-93.
- Waldheim, Charles(2001) *Park = City?: The Downsview Park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Landscape Architecture* 91(3): 80-99. <http://www.juncus.com>
- <http://www.parcdownsviewpark.ca/competition>
- <http://www.west8.nl/presentation/portfolio/rsplein.html>
- <http://www.worldofescher.com/gallery/Relativity.html>

원고접수: 2001년 4월 3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1년 8월 3일

3인 익명 심사필